

“제주 본향당 이야기”

- 구좌읍 송당본향당 신화 -

1. 채록대상자 : 이승순/심방
2. 채록일자 : 2017.06.07

옛날 제주도는 대부분 사냥을 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노루 사냥, 꿩 사냥, 이렇게 해서 많이 살았는데, 옛날 그 소천국 할아버지도 제주도 할로산 오작교 위에서 태어나가지고, 할로산에서 태어나가지고 글도 활도 못하니까 테역장오리, 물장우리 어승생 당골머리 동남어깨 서남어깨 송당 오면 한마음 곳으로 이렇게 꿩사냥 노루사냥하면서 살다가

이제 그 강남천자국에서 서정싱 따님애기. 따님애기가 탄생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몸에 괄이 났다는 건 너무나 이 애기가 버릇이 굿었어 이 딸애기가. 버릇이 굿어 난 전배독선허영 제주더레 귀향을 보내볼켄 허연 귀향을 보내부난, 서정승 따님애기가 종달리 두문개로 들어오란 아끈선창 한선창 아끈다랑쉬 한다랑쉬로 허연 송당마을을 들어오란 덩기단, 알손당 거리를 근당하난 소천국 하르버님을 만난.

할아버님을 만난 부부간 살게 되난 사농을 해서 사는디, 애기들은 아들들은 여러 형제 탄생하난 배고팡 살 수가 웃곡, 붉아가민 밥 줍서 물 줍서 행 울어가난 부부간 의논하기를,

우리가 할마님이 백주할마님이 아이고 설운낭군님아, 우리가 사농행은 저 애기들 어뎡 멕영 살리쿠과, 읍서,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니, 우리 농사나 행 살게 마썸 허난, 경 허겐 해연. 집도 절도 으시난 돌아덩기당보난 송당 들어산 보난 ‘오봉이 굴왓’ 가보난 거기가 완전 밧이 좋아지난 거기서 움막을 짓어서 할아버지하고 농사를 지영 살아가는디.

허를 낳은 할아버지가 밧 갈레 밧 잠대 짚어지고 밧 갈레 간 밧을 가는디 할머니가 점심을 행 간, 요 하르방아 점심이나 멕영 흡써 허난, 저 작벽 우티 가보민 강 우장 씨왕 놔두민, 그거를 나 밧갈당 점심먹켄 허난.

경해 텡 할머니 와 부난 할아버지는 밧 가노랜 허난, 넘어가는 대사중이 아이고 넘어가는 대사중인데 배고프고 시장허난 점심이나 멕단 거 있건 호꿈 줍센 허난,

하르바님은 마음 좋으난 저 작벽 우티 간, 작벽이엔 허건 돌 우티 주게, 게난 작벽 우티 강 보면은 우장 걸어보면 점심 있댄 허난, 대사중은 우장 걸어보난 점심 이시난 그걸 문딱 멕영 가부렸어.

다 멕영 가부난 하르바님은 밧갈당 점심먹젠 작벽 우티 간 보난 점심은 다 멕영 가부난 시장도하고 배고프고. 고만히 앉안 밧가는 쇠를 바라보난 괴기도 바싹 기립고,

아이고 저 쇠나 잡앙 먹주 헨 조꼳디 바싹 마른 삭달이 해단 불 와랑와랑 살란 익어 시냐 한 점 설어시냐 한 점 하는게 쇠훈머릴 다 먹언 아이 앉안 조꼳디 밧엔 바라보 난 조꼳디도 남의 쇠 한 마리가 이시난 에 저 쇠까지 이젠 잡아먹켄 헨, 하르버님은 놨이 쉼까지 잡아먹어 된.

이젠 밧 잠대로 행 밧은 갈아 있곡 하난 배때기로 이녁양으로 어르씩씩 어르씩씩 흐명 이젠 이레저레 밧 가노랜 흐난 날은 어느 동안 저무난,

할마님은 아이고 어떻흐난 하르방은 영 날 저무라도 안완신고 흐연 가단보난 애기 들 손 심고 업는 애긴 업고 걸른 애긴 걸런 밧더레 가단보난 작벽 우티 별경게 무신 거시 널려져시난, 할마님은 아이고 탈이나 타 먹영 하영 탕 아기들 주주, 해연 강 보 난 쇠가죽이 별경하게 널어져시난 아이고 낭군님아 저거 무신거봐 흐난, 아이 넘어가는 대사중 밥 문딱 먹어가부난 시장흐연 바싹 배고프고 밧갈단 쉼다리 보난 괴기도 기립고 잡앙먹언, 조꼳디 쉼 한 마리까지 먹어부렸주 흐난,

아이고 요 설운 낭군님아 집으로 혼저 읍써, 집으로 들어간 설운 낭군님아 이녁 쉼 만 잡아먹어도 할디 놨이 쇠까지 어떻 잡아먹은디 쉼피쟁이영 어떻 샅니까, 혼저 나 고갑서 나영 못삽니다.

겐 하르방님을 그길로 그냥 내쫓아부렸어, 부정서정흐댄 내쫓아 부난 할아버님은 저 알손당 ‘정동갈체 꼭님애기’ 허연 살았주게, 사난디 이젠 하르바님이신 때 벤 애길 나난 족은 아들 탄생해서 족은 아들 탄생흐난 하도 이 애기가 버릇이 굿어노난 백주 할마님이 이놈이 새끼 저, “설 때 버릇 굿인 애기 나도 버릇이 굿엄꾸나,” 혼저 아방 신디나 돌양강 버릇을 가리치주 헨

“아방신디 강 이 애기 말앙 삽셴” 헨 아방신디 강 맡겨부난, 하도 이 소천국 족은 아들이 하도 버릇이 굿어지난 에이 요것도 귀양정배나 보내볼젠 헨, 귀양정배 이젠 보내부난

흐를날은 요왕황제국이 바깳디 나왕보난 무에낭 상가지에 선비같은 도령이 앉아서 난,

귀신이나 생인이나 흐난. “아이고 난 제주 소천국 족은 아들인디 아방눈에 꺾이나 곡 어명눈에 시찌난 귀양정배 오랏수덴” 흐난 경 흐난.

참 아름 가득 붓이오 일천장에 베릿돌 삼천장에 먹을 갈고 영 흐여시난, 그냥 훌룽 한 선비같구나,

큰똥애기 내려오렌 흐난 눈도 거듭 아니뜨다,

셋똥애기 강 내려오렌 해보라 아이고 저 하늘에 별이 송송 있수다.

족은똥애기 내려오렌 하난 허우덩씩 헨 내려오란 큰똥애기 족은 똥애기도 방 덜에 아니들고 족은 똥애기 방으로 들랜 흐난, 서른여덜 잇바디를 허우덩씩 흐명 방문을 열어 들어간

사위의 먹성이 좋아 돼지도 전마리 소도 전마리 먹는데, 계무로 사우하나 못멕이리 야 동창기 서창기 남창기 열안 석덜열흘 멕여가난 국도장군 밥도장군 꺾기도장군 해 가는 게 동서남창고 다 비게 되어 가난 그때에는 아이고 요거 사우이선 하나 쓸 곳

웃다.

어서 나고 가라, 계건 배나 한척 지어줍서 겐 배 한척 짓어 아전, 양도 부부간이 강남천자국을 들어간 백물레왔디 배를 세워시난, 이제 그 강남천자국에서 난리국이 난거라 겐 이젠 도원수를 막아두고 “땅 한 척을 가지겠느냐, 물 한척을 가지겠느냐”
후난

“난 제주도 들어가켄” 헐,

부부간이 제주도 들어오란 어머니 저 올레에 앉아서난 콩불림질을 햄시난, 이제 신 청풍쌀 내어낸 삼십원 묶으난 어머니가 눈이 펠롱하게 텨.

그때에는 어머니아 읍써 우리 다 모두 앉앙 살수어시난 우리가 각각이 다 흠어정 살게마썸 헐

큰아들은 거멸 문국성, 셋아들은 시선당, 이제 세 번째는 덕천, 네 번째는 노늘(회천), 다섯 번째는 시에, 일곱 번째가 이제 김녕괘네깃또. 경 헐 살아온 그 역산디, 지금도 큰 제일 날은 가면 할머니는 제라하게 위패를 영 헐 딱 앓지고. 또 그 안네 이제 여냥 상괘상이랜 하는 거주게, 궤 안네 할머니가 참 서울할머니난 연반물 치매에 진녹색 저고리 이제 영영 물색으로 행 할머니한테 바치고, 할아버지는 쇠 잡아먹었던 해연 부정서정허던 헐연, 군문 베갯딜로 정월들엔 우리가 강 멀찍어니 상을 놓니다.

할아버지, 상을 놔, 상을 낳 하느디 지금도 거기 가젠 하면 정월들에 어느때나 우리가 이 마을에서도 경 허곡, 툄디는 돼지고기 올리는 디도 있고 소고기 먹영 가도 아무통도 안하느디 소고기는 높은 제에 올리는 거니까 부정을 안타느디,

첫째 우리는 돼지고기도 안 먹주마는 그 정월 나가 초하를부터 딱 명절해서 소고기 적갈을 먹어나민, 열사흘날까지는 소고기를 일절 이 집사관은 먹지 말아야 되마썸. 먹으민 안되어. 나가 죄니까.

경 허곡 마을에서도 경 허곡. 경 해영 지금도 가면은 큰 정성을 해영, 7는대 질구 덕에 다대떡 맨들고 괴기 두 개 굽고 메 하곡 경 해영. 그 아까 왜 그 이 요왕국이 겐 족은뜰애기 요왕 소천국 족은 아들이 이제 그 옛날은 서당팻디 그 요왕대부인을 모셨단 합니다.

옛날에 그 선생들은 송당 사는 선생은 고씨인디 그 한집을 다 놀려나서. 토산 한 집을 놀려나단, 이제 우리가 놀리켄 옛날대로 그대로 하쿠덴 후난, 거기 몇사람이 예 이 옛날대로 헐 필요 엇수덴 본향만 청합셴 헐단

이젠, 가만히 생각하난 아멩해도 안됨직 헐, 삼년 전부터 그 본향을 소천국 할머니을 딱 청해나면은 애기 만들고 방울 맨들고 경 해연, 한 삼년 전부터 토산 한집을 놀립니다 우리가 그대로, 옛날 그대로, 경 해연 정월 열사흘날은 대제일날로 자손들 이제 많은 자손들이 다 강 과세문안 올리곡 이월 열사흘날 영등제 가곡, 칠월 열사흘날 백주제로 가곡, 시월 열사흘날은 만국제로 가곡, 참 다. 이제 그 칠월 열사흘날도 옛날은 우선 그 우마 무쉬 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 백주제도 많이 가난디 많이 안감주마는, 그래도 많이 들 몇사람 일도 책임있는 분들은 다 갑니다 게.

족은 아들이 태자가 손당으로 부인을 돌안 왕 보난 어머니가 먼 올레에서 콩불림질

햄시난,

죽은 아들이 어머니 저 문안 드림수댄 한 절 꼬박헌난, 아고 죽으라고 귀양정배 보낸 애기 살아오란 문안인사 드림꾸나, 어머니 눈에 콩깍지들언 죽게 되گان 저 어머니 치마를 받음써, 겐 치마를 옛날엔 입을 때난 치마통을 영 받으난, 처갓집이서 요 왕황제국 딸 사위영 나올 때에, 니가 쥔 어려운 일 있거들랑 이 흰 청풍쌀 내어낵 30번만 푸끄면 니 소원을 이뤄준다 한, 그 청풍쌀 내줬던 허주게.

게난 그 지금 말하자면 소천국 죽은 아들이 아니고 요왕 황제국 따님애기가 어머니 아 치맛통 받음써, 치맛통을 받으난 흰 천풍쌀 내어낵 30번을 확 푸끄난 어머니 콩각지 눈에 딱 치마통드레 떨어지난, 아이고 설운애기 호첩도 거느려왔구나 하는 건, 며느리도 해 오랐구나,

어머니 아버지신디 강 인사문안 드리쿠다 겐 알손당에 간 아버지 죽은 아들 귀양 죽으라고 귀양정배 보낸 애기 아버지 살안 왔수다 절받음센 한, 속곡헌난 소천국은 거기서 아들 보자마자 그냥 딱 죽어부렀던 해여. 소천국 하르방도,

어머니신디 오란 이제 다 이젠 우리영 7찌 살 수 어시난 각각이 다 이녁 마을만씩 쉽게 마을만씩 초지허영 우리 각산지씩 영 해영 살쿠다 해된,

이젠 죽은 아들은 이제 서당 밧디 강, 이녁 요왕 대부인을 앓찌뵤 오백장군 따님애기 눈 맞으난 그디 간 가도, 오도 안헌난, 흐를은 요왕대부인이 아이고 어떻헌난 설운낭군은 안 완신고 한 기냥 가멍가멍 찾으멍 찾으멍 가는게, 애는 파삭파삭 말르곡하난 독진 발자국 길내에 물이 이시난 엇더전 그걸 뿔아먹은 게 기냥 콧구멍드레 굶은 것이, 독술이 하나 획 하게 들어가난 이젠 무슨 쟁이 불령 독술을 꺼내젠헌난 그걸 기시려야 할 거 아니, 기시리난 기끄령 냄새가 탕천하난 이제 낭군님도 못찾고 집에 왕 이시난, 설운낭군은 오라시난

아이고 나 영영 행 찾안 못찾안 왔수댄 헌난 저 어떻헌난 영 기끄령 냄새가 탕천허니 헌난 이만저만 해수댄 헌난,

너 부정하고 서정하단 한, 낭도 물도 없는 가닥이 대정 마라도로 귀양정벨 보내부난 또 집에 완 이시난

오백장군 따님아기는 설운낭군님이 또 어떻 한 안완신고 한, 완 보난 큰 어명은 어시난 아이고 설운낭군님아 큰 성님은 어디갔수가 하난

아이 큰 성님은 이만저만 행 귀양정배 보내부렀던 헌난, 아이고 큰 성님을 그만씩 한 일에 귀양정배 보내민 후첩이엔 흐민 죽은각시주 후첩인디 난들 여기 살아집니까, 나 강 귀양정배 풀렁오쿠댄 헌난, 어서 경흐렌 한,

죽은 부인이 귀양정배를 풀리레 강 보난 큰 어명은 애기는 채똥같이 배연 앓아시난 아이고 성님 영 애기 설젠헌난 얼마나 고생헉디게 하난

아이고 날 귀양정배 풀리레 왔건 집으로 혼저 강 걸렁이 일곱하고 지성기 일곱하고, 혼저 강 가정 오렌 헌난, 달음질 행 집으로 완 지성기 일곱, 걸렁이 일곱 출령 간 애기는 받는 게 하나 두 개 일곱애기를 낵은 거 아니, 일곱애기를 낵으난 이젠 죽은 어명이

“아이고 설운 성님아, 영 낭도 물도 없는 가닥이 섬에서 애기 일곱 뺨 낳젠 허난 얼마나 애가 컴컴 물롭디가, 설운성님이랑 저 바당 가위로 오멍 산도룩하게 해삼이나 잡아먹으멍 보말이나 잡아먹으멍 읍서, 날랑 애기업어아정 옷한질로 혼저혼저 달음질 행 집으로 가쿠덴 해연.”

어서 경 허렌 해내, 이제 족은 어멍은 애기 일곱 업어아전, 옷한질로 가는데 산방산 바람잔 밧 근당 하난, 삼동이 가물가물 익어시난, 애기 일곱 부러뒀, 삼동이나 타 먹 주 행, 삼동을 막 타먹단 보난, 얼굴 보난 기자 어느 급소 향아 이렌 한 건 어느 기냥 참 봐나지도 았은 남정네가 확 하게 훌목을 잡젠 허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군 해낸 그냥 삼동 타 먹단 애기 확 업은게 여섯 애기만 업은 거라. 겐 집으로 강 아이고 성님아 애기 받으셧” 행, 애기는 하나 두 개 세다 보난 여섯 애기난 큰 성님은

“이년아 저년아 너 벌써 다심태하느냐, 애기 하난 코가 어떠냐 눈이 어떠냐 어딜 그래 질러난 거기서 얼굴 모르는 남정네 훌목 잡아뵈뵈던 허민 또 이제 눈에 날거 난 경은 못하곡

“아이고 삼동 타 먹단 날 어둑어 가난 급하게 업어 오는데 애기 하난 내부러졌수덴 해연. 산방산디 바람잔밧 애기 찾으래 왕 보난, 애기는 화를 내 뵈디 낳 내부난, 가매 기도 왕 눈도 좇아볼고 하도 기냥 막 이레저레 둥글단 보난 막 얼굴도 이레저레, 막 기냥 피부벽이 되고 햇빛만 맞당 보난 대실대실 얼굴도 영 해서

경허난 그 한 집에는 걸리면 우선 눈 영 방울침 행 영 허젠 하민 이 눈에랑 보인난 게 즈진난게 도랑나팔 핏줄도 걷어줍서, 침침한 것도 걷어줍서, 이 얼굴에 대알대알 별러지는 이 피부병, 요센 애기덜 아토피 아토피라도 몬딱 걷어줍서, 경 행 그 한집 이엔 하민 오골룩하게 났고, 경행 그런 역사가 잇수다.

이거를 한집을 이제 게난 그 한집을 우선 기냥 참 잘 뭐하곡, 또 토산 한집은 옛날 부터 무신 모른 사람은 집집마다 배염을 모셨서,

그것이 아니고 본향이 그런 본향. 본향이. 게부난 우선 아들보다 딸. 게난 옛날 어른들은 에이구 시집못보내면 말주, 토산은 안보내크라. 경 해난 참 도래가 잇수다. 피부병에 걸리면 심방들은 다 압니다게. 게난 굿해줍서, 무신 일 해줍서 행 어디짱 하면 저 토산이우다 하면 게면 어땡어땡 합써, 에이구 막 눈도 양 침침하곡 양, 막 우리애기들도 자손들도 막 피부병 병원에 가도 안 났곡 막 그냥 악살만.

아고 그거 한집에 걸렸수다 거 한집 잘 행 방울침 행 풀면 나십니다 게난 이 한집은 병도 잘 주고 잘 풀어지기도 하고 또 귀 중이염지 귀도 생귀도 알려가민 한집이 허민 오꼳 나사볼고. 경 하는 한집이우다.

겐 옛날은 송당 옛날 첫 번 당에 땡기단 송당 고씨선생입주게. 고씨선생인디 그 얼굴은 몰라도 역사영 보면, 그 어른 선생님네 할 때는 한집을 다 해났덴 해예. 하단 중간에부터 이거를 딱 잘라부런 안하단, 이제는 또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것도 먼디 간 자손들도 있고 먼디 또 우리가 이제 옛날 해난대로 그대로 해줍센 행, 한 3년 전 부터 판데는 가민 그디 연유올려낵 이제 자손들 잘 되게 해줍서 농사 잘 되게 해줍서

영 해연 여러 가지 연유 닦아낸 본향을 딱 청하민 그만이주마는,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여기는 가민 열명부터 딱 장구 창 앉안 올려나민 이제 심방이 나상 이제 연유를 다 닦으는거라

우선 이 송당은 당근, 콩, 우마^ㅁ쉬, 더덕, 영 허기 때문에 그런걸 또 객지에 나간 자손들 외국에 나간 자손들 다 잘되게 해줍서 해낭 이젠 참 문을 열거아니우파게, 삼시도군문 거기서 열려나민 이제 부모없는 자식이 없는거라.

본향이 다 각 본향이 아무리 있어도 우선 백주 할머니를 청하게 되면, 이제 몇 번 신청귀에 붙여낭 백주할머니 청할 때는 저고리 백주할머니 저고리하고 치마하고, 바랑하고 경해난 백주할머니를 딱 청해놔

청해놓으면 이제 거기 이제 간 자손들이 문딱 절합니다게, 절해나민 백주할머니는 이제 딱 청해당 그디 이제 모시면

‘오닐 오닐 오닐이여 날도 좋아 오닐이여 백주 할마님 간장간장 풀립서’ 행 노래해여. 노래해뵈, 또 신청귀 불령 그땐 각서본향, 제주도 본향을 다 청하는거라 그때는. 심방이 이제 신칼하고 감상길 청해영 본향 딱 청해 낱,

그때는 자손들이 또 절혈거, 절 해나민 그 다음에는 이제 한복으로 저고리 치마를 해영 애기맨든거 탁 심방이 둘러업고 방울을 해영 영 들령 이제, 그때는 또 우알당서 본향 한집을 또 청하는 거라 마썸

알당은 요왕국 여드레또 웃당은 서당팻 좌정한 요왕국대부인게. 우알당서 본향한 집, 이제 아무 해 만약에 올해 정유년이민 이제 심방이 딱 들어상 ‘정유년 상정을 열 사흘날 송당 ㅁ을 백주대제일로 각서본향 한집님 청허였수다.

양 각서 본향 한집 뒤우로 우알당서 본향한집님도 오리정 신청괘입니다’ 행, 그땐 애기 둘러업고 방울 영 해영 가정 왕 그때는 경 해영 청합니다게.